

# 노인만 보는 예능? 2549도 본다!

### '미스터트롯' 시청률 30% 눈 앞 오디션 예능 포맷 적극 활용 레트로 열풍 진입 장벽 낮춰

꿈의 시청률 30% 고지를 눈앞에 둔 TV조선 '미스터트롯'이 광고업계에서 주된 공략대상으로 삼는 25~49세(2549) 사람들한테서도 만만치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엔트의 간판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처럼 젊은 층에 익숙한 오디션 예능 틀을 도입해 트로트에 대한 낯선 느낌을 지우고, 빼어난 실력을 갖춘 참가자로 인해 풀을 넓힌 데다 때마침 레트로 열풍까지 일면서 2549세대를 끌어들이는 분석이 나온다.

◇ 시청률 28% 찍은 날, 2549 시청률도 8.9%로 최고 기록  
트로트 장르 특성과 시즌1 '미스터트롯' 때문에 '미스터트롯' 또한 50대 이상만 보는 프로그램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지난 13일 방송에서 2549 시청률은 9%가 가까이 나타났다. 전체 시청률 28%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이다.

2549 시청률 상승세는 두드러진다. '미스터트롯'이 1회에서 7회까지 12.5%에서 28.1%로 오르는 동안 2549 시청률은 3.5%에서 8.9%로 뛰며 근소하게 더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트로트라는 성인 가요 장르와 노년층 시청자가 많은 TV조선이라는 채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스터트롯'은 젊은 층도 매력되고 있다"며 "트로트 노래만 있었다면 이 정도 수준의 영향력을 얻을 수 없다. 다양한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가미되면서 시청률이 30% 가까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트로트 오디션'에서 '오디션'에 장점·편집도 돋보여



'미스터트롯' 본선 1, 3차전은 장르별 팀 미션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이 합숙하며 선곡과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과정은 엔트의 '프로듀스 101' 시리즈와 유사하게 연출되며 오디션 예능에 익숙한 20대 초반 시청자까지 유인했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오디션'을 강조함으로써 트로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그저 오디션 예능의 한 장르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세련된 무대 연출과 한 컷 한 컷 방망이 깎듯 매만지는 편집도 주요했다. 도입부마다 심사단 리액션을 적절히 넣어 시청자와 공감을 이루고 무대에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구절은 청중 반응과 적절히 섞어 '이 부분이 이 노래의 킬링포인트'라고 짚어준다. 이 역시 오디션 예능에서는 하나의 문법으로 통할 정도로 자주 쓰이는 편집 방식이다.

또한 미스코리아 형식을 차용한 이전 시즌과 다르게 '미스터트롯'은 순수 경연에만 집중함으로써 성 상품화 논란을 없앴고, 이는 젊은 여성 시청자들이 시청층 폭을 확대하는 효과를 낳았다.

◇ '제2의 송가인 노린다'...시즌1 후광 효과에 레트로 열풍까지

오디션 예능에서 가장 중요한 참가자 실력과 매력도 흥행에 영향을 끼쳤다. 송가인이라는 걸출한 스타를 낳은 시즌1

'미스터트롯' 후광에 힘입어 전국 각지의 숨은 고수가 대거 참여했다. 보통 성공한 오디션 프로그램은 시즌2에서 참가자 풀이 대폭 확대하며 흥행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미스터트롯'도 예외는 아니다.

정택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현재의 '미스터트롯'을 전 국민 오디션인 엔트 '슈퍼스타K'와 비교하며 "아이부터 아저씨까지 다양한 연령대 일반인 참가자와 아이돌, 기성 스타, 밴드 등이 참가해 버라이어티한 맛을 낸다"고 분석했다.

마침 대중문화계에 부는 레트로 열풍 덕분에 트로트에 대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정 평론가는 "젊은 세대가 과연 트로트를 좋아할까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트로트가 그들에게도 통한다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한 상황"이라며 "옛날의 감성을 오늘날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스터트롯' 참가자들은 중영 이후 전국투어 콘서트로 인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공연기획사 쇼플레이 측에 따르면 250억원대 제작비가 투입되는 '미스터트롯' 전국투어 콘서트는 오는 4월 18~19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1년 6개월간 전국 40여개 도시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 현빈 "군사분계선 넘는 사랑...리정혁 응원 감사" 손예진 "멋진 작품...많이 울고 웃고 행복했어요"

### '사랑의 불시착' 21.7%로 중영

### tvN 역대 드라마 시청률 1위

"여러분 곁에 리정혁이 행복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배우 현빈은 17일 드라마 홍보사 와이트리를 통해 '사랑의 불시착' 중영 소감을 밝혔다. 극 중 북한 장교 리정혁을 연기한 그는 북한군을 미화한다는 비판과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잘생긴 외모와 멜로 연기로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현빈은 "리정혁과 윤세리의 예기치 못한 만남이 특별한 행복이 되었듯, '사랑의 불시착' 또한 시청자분들에게 그런 선물이었다면 하는 바람으로 작품에 임했다"고 말했다.

현빈은 명장면으로 9회 엔딩을 꼽았다. 리정혁과 윤세리가 군사분계선에서 헤어지는 장면을 두고 그는 "윤세리를 따

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용기를 낸 리정혁의 넘치는 마음이 드러난다"며 "두 사람이 현실을 이겨낸 순간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다"라고 평했다.

재벌 상속녀 윤세리 역으로 현빈과 호흡을 맞춘 손예진도 "연기하면서 많이 웃었고 많이 울었다. 무엇보다 정말 행복했다"며 "연기 인생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할 멋진 작품을 할 수 있게 돼 감사했고 그동안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메인 '둘리 커플'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받은 '구단커플(구승준+서단)'의 김정현-서지혜도 시청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리정혁의 약혼녀 서단 역의 서지혜는 "연기하는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다녔다. 추위와 싸우며 촬영하기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힐링'을 느낀 순간들이 모두 추억으로 남았다"면서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행복했다"고 밝혔다.

구승준 역의 김정현은 "이번 작품은 더욱 의미가 있다. 많은 사랑 안에서 반성과 희망을 느꼈다. 16회의 여정 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그 시간을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악역으로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오만석, 북한 주민으로 분하며 생생한 생활상을 전한 김정난과 김선영 등 많은 배우도 시청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드라마 중영 당일인 전날 밤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는 주·조연 배우들과 스태프가 참석하는 드라마 종방연이 열렸다.

'사랑의 불시착'은 최종회 시청률 21.683%(닐슨코리아 유료 플랫폼)를 기록하며 tvN 역대 드라마 1위 자리에 올랐다. 이는 2016~2017년 방송한 김은숙 작가의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의 최고기록 20.5%를 뛰어넘는 기록이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5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10 좋은 아침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50 팔도밥상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0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50 SBS 뉴스
11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고립낙원(재)	00 기본 좋은 날	00 KBC 생활뉴스 10 특집 실컷 나는 오늘 4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45 육탄방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0 8시 마가트S 50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1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합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TV는 사랑을 신고(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40 두 번은 없다(재)	
4	00 시사간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40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책 방송연설 (자유한국당)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날아라 숲들이 뉴 비기닝(재)	00 5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 외전 외물리(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유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환상의 타이밍 다시보기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볼24 55 날아라 숲들이 뉴 비기닝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0 끼리끼리 스페셜	40 낭만닥터 김사부 2
10	00 역사저널 그날 55 더 라이브	00 고립낙원		
11	35 UHD 슈퍼 40 바다 건너 사랑	00 스탠드 업! 슈퍼루키 스페셜	10 PD수첩	00 불타는 청춘 외전 외물리
12	30 KBS 뉴스 40 KBS 결탁 다큐멘터리(재)	20 소포츠 하이라이트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55 KBS 중계석 <에라토 앙상블>	0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20 나이트 라인 50 네모세모(재)

##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건축탐구 - 집	18:00 생방송 퓌퓌! 보니 하니
07: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EBS 다큐프라임	19:00 스파이더맨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똥똥똥 유치원	14:45 물랑	20:00 머털도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20:30 아웅만명 귀여워2(재)
08:45 최고대!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인도네시아 휴먼 로드
09:30 원더볼츠	15:55 엄마 까투리(재)	-그들이 봉인들을 떠나지 않는 이유>
09:40 아웅만명 귀여워2	16:10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뜨끈뜨끈, 전국 기행 2부
10:30 한국기행	16:40 똥똥똥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행복을 들쭉 잡아, 첫국>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1:50 EBS 다큐프라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해오리 해오	22:45 건축탐구 - 집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23:35 미래교육 플러스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8일 (음 1월 25일 辛卯)

<p>36년생 중요한 것들이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48년생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60년생 외부에는 노출하지 않음이 합당하다. 72년생 요령과 지혜를 총 동원해야 가까스로 수습할 수 있다. 84년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96년생 배려하는 마음이 생산적인 관계로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7, 63</p>	<p>42년생 미진함을 보충하는 기쁨이 있다. 54년생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 66년생 가까운 이와 인연이 길사로 연결될 것이다. 78년생 계 계를 확실하게 해낼 것이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90년생 이룸이 전에 된다. 02년생 매끄러운 기교가 자연스럽다. 행운의 숫자 : 19, 99</p>
<p>37년생 묵묵히 진행해 나가지만 한편 궁극적으로 성사되리라. 49년생 가까운 곳에 분명히 하자기가 있을 것이니 잘 살펴 보아라. 61년생 앞으로 복잡해질 것이니 체계를 잡자. 73년생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이다. 85년생 머지않아 진면모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니 답답해 할 필요가 없느니라. 97년생 기존의 것을 고수하라. 행운의 숫자 : 01, 76</p>	<p>31년생 지금의 상황에서 더 늘린다면 복잡해지지만 할 것이다. 43년생 계획대로라면 차질이 없겠다. 55년생 서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67년생 상황에 맞춰서 참신한 변화를 꾀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79년생 번거롭더라도 직접 행해야 이루어질 것이다. 91년생 현대대로 추진한다면 대체로 순조롭겠다. 행운의 숫자 : 30, 85</p>
<p>38년생 북이 흥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50년생 망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62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앞만 보고 뛰어도 된다. 74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할 때이니 말이다. 86년생 생소하기는 하나 재미는 있을 것이다. 98년생 막연하다면 절제할 수도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74, 73</p>	<p>32년생 발 빠른 조치가 절실하다. 44년생 빈틈 없는 계획 수립이 성공 여부의 관건이다. 56년생 전체를 이해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확보하자. 68년생 잊고 있었던 과거사가 문제점을 야기 하겠다. 80년생 목표점에 진입하고는 있으나 현재의 판세로는 변수가 있다. 92년생 오류를 찾아내서 잘 대처한다면 순행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7, 55</p>
<p>39년생 객관적으로 조처하였을 때 성사의 가능성을 높게 된다. 51년생 위험성이 보인다면 우회해야 마땅하다. 63년생 부드러움이 강함을 능히 제어하는 법이다. 75년생 길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 있으니 실속을 차려야 할지이다. 87년생 언행을 가려서 해야 만이 후회하지 않으리라. 99년생 일상에 서 벗어날 수 있는 파격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27, 70</p>	<p>33년생 조치일관한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다. 45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막상 열어보면 텅 비어 있노라. 57년생 비슷한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69년생 상이하다고 볼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합치한다. 81년생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문제점이 속출할 것이다. 93년생 절실한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시 해될 터라. 행운의 숫자 : 42, 84</p>
<p>40년생 규칙적이고 적당해야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52년생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아야 한다. 64년생 부자연스럽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76년생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88년생 다소 번거롭더라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습관화 하자. 00년생 대찰 마련에 부심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9, 88</p>	<p>34년생 평소와 연원해 왔던 바가 이루어지겠다. 46년생 양보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서로가 손해볼 보게 되어 있다. 58년생 찬스란 연기는 어려우나 놓치기는 쉬운 법이다. 70년생 참여할 관심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나. 82년생 손대지 말고 그대로 유지할 것이 최상이다. 94년생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니 절대성을 부여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8, 56</p>
<p>41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기필코 이루고야 말리라. 53년생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 65년생 대의를 도모 하자. 77년생 형세가 석연치 않다. 89년생 앞으로는 일상천리로 진행될 것이니 기대해도 된다. 01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습고대하여 왔던 바를 반갑게 맞이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4, 94</p>	<p>35년생 현대의 추세대로라면 목표에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47년생 인과응보의 세상 이치에 놀랄 것이다. 59년생 필수 사항을 빠뜨리지 말아야겠다. 71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83년생 무거지 하거나 비효율적이라면 빨리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95년생 괜히 굶어서 부스럼 낼 것까지는 없으니 잠자코만 으면 된다. 행운의 숫자 : 40, 62</p>